

사무엘서

제 2 강

사무엘과 사울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김경신 (NT Professo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9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copyright ©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사무엘서(The Book of Samuel)

제 2 강 사무엘과 사울(Samuel and Saul)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사무엘의 왕정 도입(Samuel's Prelude to Kingship)	3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4
1. 사무엘의 초창기(Samuel's Earlier Years)	5
2. 지도력의 전환(Transition in Leadership)	10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17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18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20
III. 사울 왕정의 실패(Saul's Failed Kingship)	23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24
1. 사울의 초창기(Saul's Earlier Years)	25
2. 지도력의 전환(Transition in Leadership)	34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49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50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53
IV. 결론(Conclusion)	55

사무엘서(The Book of Samuel)

제 2 강 사무엘과 사울(Samuel and Saul)

I. 서론(INTRODUCTION)

한 무리의 남자들을 이끌고 긴 여행을 떠났던 한 안내원의 이야기가 전해진다.¹ 첫날이 끝날 무렵, 청년들 중 한 명이 불평했다. 그는 "이것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원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지도를 들고 그 날 그들이 어디 갔었는지를 그룹 전체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장담했다. "우리는 확실히 올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자기 책을 쓸 때 이 안내원과 똑같은 일을 했다.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조상들이

¹ The host of this series, **Dr. Thaddeus J. James, Jr. (Host)** is Vice President of Academic Affairs at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He holds an M.A. in Pastoral Leadership from BTS and a Ph.D. in Theology from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In addition to teaching seminary students and supervising faculty, Dr. James serves as Director of the BTS Prison Initiative at Bibb County Correctional Facility, a program that offers Certificates in Practical Theology and/or M.A. degrees in Biblical Studies. He is Associate Minister and a Ruling Elder at Household of Faith Church (PCA) in Birmingham, and served as chair of the Association of Reformed Theological Seminaries (ARTS) Commission on Accreditation. Dr. James and his wife Yvonne are the parents of six children, ten grandchildren, and have been licensed therapeutic foster parents for more than 19 years.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 해 동안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자신만만했다. 그는 자신의 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확실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들에게 다윗의 왕정으로 인도한 길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 길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책을 썼다.

이 강의는 **사무엘서** 강좌의 두 번째 강의로 제목은 "사무엘과 사울"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사무엘서의 처음 두 주요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장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의 이전 강의를 통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책의 세 주요 부분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먼저,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의 왕정 도입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하 1 장까지는 사울 왕정의 실패를 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4 장은 다윗 왕정의 지속을 다룬다.

사무엘서 저자는 분열 왕국 시대나 바빌론 유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심각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의 책을 썼다. 그래서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책을 처음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았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그의 중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정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정에 이르렀는지 설명하였다.

한편으로, 사무엘서 저자는 그의 원래 독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기를 원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전환한 것이 어떻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정에 이르렀는지 보기를 원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라고 촉구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사무엘과 사울에 대해 다루는 책의 두 주요 부분에서 어떻게 전면에서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무엘과 사울의 생애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이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상 1-7 장이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왕정 도입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사무엘상 8 장에서 사무엘하 1 장까지 계속되는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룰 것이다. 그럼 먼저 사무엘상 1-7 장이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왕정 도입부터 살펴보자.

II. 사무엘의 왕정 도입(SAMUEL'S PRELUDE TO KINGSHIP)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은 북쪽 지파의 땅에 거류하던 불충실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이끌었다고 전한다. 사사기 저자는 이런 일이 한 가지 주된 이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책의 끝 부분에서 네 번이나 표현한 것처럼, “그 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²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사무엘서가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출신 레위인으로 이스라엘을 왕정 시대로 인도했다.

우리는 사무엘의 왕정 도입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책의 구조와 내용을 탐구함으로써 이 부분의 본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장들에 관한 기독교인의 적용에

² 역자 주: 삿 17:6; 18:1; 19:1; 21:25

대해 몇 가지 고찰을 할 것이다. 그럼 먼저 사무엘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삼상 1-7 장)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장들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주요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무엘서 저자와 그의 원래 독자들은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다윗의 집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사무엘서가 기록될 무렵,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여러 해 동안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저자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사무엘을 일으키셨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사실을 더 확증하기 위해, 저자는 두 번째 주요 주제인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학적 원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학적 원리에 의해 하나님께 묶여 있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의 생애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택을 베푸셨는지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예배에 관한 모세의 율법과 관련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인간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도 집중하였다. 그는 예배의 실행이 역사의 이 단계에서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는지를 여러 번 설명했다. 더 나아가, 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예배 규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각각 복과 저주를 내리셨는지를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에 초점을 맞추며, 저자는 그의 독자들에게 사무엘의 왕정 도입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시작한 길을 따라온 것은 옳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정하셨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왕정 도입(삼상 1-7 장)의 구조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삼상 1:1-2:11 에서 전하는 사무엘의 초창기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것은 삼상 2:12-7:17 에서 전하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서 사무엘에게로 레위인의 지도력이 전환되는 것으로 옮겨간다. 사무엘의 초창기를 다루며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등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날을 시작하셨음을 밝혔다.

1. 사무엘의 초창기(삼상 1:1-2:11 Samuel's Earlier Years)

사무엘의 초창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의 출생과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그의 봉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단일한 내러티브는 삼상 1:1-28 에 나오며 삼상 2:11 에서 짧은 결론으로 끝난다. 이 내러티브 안에는 삼상 2:1-10 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의 노래를 길게 재현한 내용이 담겨있다.

a) 탄생과 봉헌(삼상 1:1-28; 2:11 Birth and Dedication)

이전 강의에서 논했듯이,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에 대한 이야기는 한나라는 여자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브닌나는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들의 가족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열리는 연례 절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이런 절기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자식이 없다고 잔인하게 비웃곤 했다. 더구나 엘가나는 한나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자신만으로 한나에게 충분하다고 하며 불평하곤 했다.

어느 한 절기에 한나는 슬픔에 압도되어 조용히 물러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를 섬기도록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삼상 1:11 에서 그녀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녀가 민 6:1-21 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특별한 헌신을 하는 나실인의 서약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크게 슬퍼하며 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술에 취한 것으로 여기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슬퍼서 여호와께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엘리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심으로써 그녀를 중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 에피소드가 있는 지 얼마되지 않아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를 사무엘(히브리어로 שמואל [시무엘])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이름은 아마도 "그 이름은 엘이다."라는 뜻일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나타낸다. 사무엘이 젖을 떼 후에, 한나는 서약을 지키며 사무엘이 성막에서 엘리를 수종들며 여호와를 섬기도록 바쳤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 자체로만 보면 기도에 기적적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한 겸손한 레위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나의 경험은 개인적인 삶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저자는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찬양을 사무엘의 탄생과 봉헌에 대한 내러티브 안에 끼워넣음으로써 이 더 큰 의미를 밝혔다.

b) 한나의 찬양(삼상 2:1-10 Hannah's Praise)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와 복이 어떻게 악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의 상황을 역전시켰는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들의 출생과 봉헌을 통해 하신 일에 대해 그분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역전 능력은 책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나의 노래는 실제로 사무엘의 책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목차를 제공한다.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³ 사무엘상 2 장에서 볼 수 있는 한나의 노래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하다. 사무엘서의 많은 중심 주제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한나의 노래와 신약에 나오는

³ **Dr. John Oswalt** is the Visiti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마리아의 노래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두 노래에서 제시되는 요점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여호와가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자, 가난한 자, 망가진 자, 풀이 죽은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성경을 바로 관통하는 주제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난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실제로 그녀를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이 책 전체로 흘러가는 것을 본다.

삼상 2:1-10 에 기록된 한나의 찬양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사무엘서의 처음 장들에서 보는 것처럼,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행하신 일로 시작한다. 한나는 삼상 2:1 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켰는지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실로에서 브닌나가 드린 불성실한 예배 때문에 그녀를 저주하시며 수치스럽게 하셨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신실한 예배 때문에 그녀에게 복을 주셨고 그녀가 얻은 아이로 인해 기뻐하도록 하셨다.

이에 이어서, 그리고 책의 다음 몇 장들과 마찬가지로, 한나의 노래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확장된다. 삼상 2:2-8 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더 폭넓게 내리시며 많은 사람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삼상 2:7-8 에 나오는 한나의 말을 들어보라.

(삼상 2:7-8 개역개정) 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데도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 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섭리에 대한 이러한 더 폭넓은 패턴은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지도력 전환을 내다보도록 했다. 이 강의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을 저주하시고 사무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다윗과 그의 왕조에 복을
베푸셨다.

마지막으로, 책의 마지막 주요 부분이 다윗 왕정의 지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한나의 찬양을 마감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왕을 고대한다. 삼상 2:9-10 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저주와
복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이길 이스라엘 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다. 삼상 2:10 에서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라

(삼상 2:10 개역개정)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적들의 손에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여기서 한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했다. 그들은 “산산히 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적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내리실 날을 향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고
확실했다.

그러나 한나의 마지막 말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혀주는 점에 주목하라. 그녀가 삼상 2:10 의 끝 부분에서 표현한 대로, "여호와께서 ...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스라엘 왕에게 힘과 승리로 복주심으로써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불행히도, 많은 해석자들은 한나의 마감하는 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사무엘서에 익숙한 모든 사람은 나중에 사무엘상 8 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삼상 8:7 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나 자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종류의 인간 왕도 가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인간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열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삼상 8:20 은 이스라엘이 이 시기에 왕을 원했던 것은 단지 "그들도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들의 불충성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은 그들의 왕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촉진시켰다. 사실, 한나가 미래의 왕, 즉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길 왕을 열망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전 계시들의 일관된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다. 창 17:6 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약속으로 복을 주셨다. 창 35:11 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외에도, 창 49:10 에서 야곱은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신 17:14-20 에서 왕에 대한 규례들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 왕들이 세워질 것임을 예상하셨다. 게다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네 개의 절[삿 17:6; 18:1; 19:1; 21:25]은 사사 시대의 문제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사람은 한나만이 아니었다. 삼상 2:35 을 보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왕] 앞에서 영구히 행할"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구절들에 비추어, 우리는 사무엘의 기적적인 출생이 이스라엘 신앙의 고대 교리에 대한 한나의 확신을 새롭게 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전세계로 확장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다.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날로 더 가까이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무엘의 초창기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사무엘의 왕정 도입의 두 번째 부분(삼상 2:12-7:17)에서 이스라엘의 레위인[제사장] 지도력의 전환을 고찰해보자.

2. 지도력의 전환(삼상 2:12-7:17 Transition in Leadership)

사무엘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나가 그를 바쳤을 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힘있는 레위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겸손한 사무엘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전환은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사실, 이 전환은 모세 언약대로 하나님 자신이 저주와 복을 내리심으로써 이러한 사건들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저자가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정도로 매우 중요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모세의 예배 규례들을 명백히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세 율법의 예배 지침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사무엘서 저자는 엘리 가족과 사무엘 사이의 네 가지 대조를 통해 이러한 지도력의 전환을 설명했다. 첫째로, 그는 삼상 2:12-21 에서 엘리

아들들의 예배와 사무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대조했다. 둘째로, 그는 삼상 2:22-26 에서 엘리 가족과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과 백성의 평가를 대조했다. 셋째로, 그는 삼상 2:27-4:1a 에서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대조하였다. 넷째로, 우리는 삼상 4:1b-7:17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과 관련하여 엘리 가족과 사무엘의 대조를 본다.

a) 하나님의 평가(삼상 2:12-21 Divine Evaluations)

첫째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비교는 삼상 2:12-17 에서 엘리의 아들들을 언급하며 갑작스럽고 단정적인 비난으로 시작한다. 삼상 2:12 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전한다. 그런 다음, 저자는 그가 왜 이런 관점에 이르렀는지 설명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정해진 대로 희생 제물에서 자기 몫의 고기를 취하지 않고 제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스스로 최고의 고기를 가로챘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억지로 가장 좋은 부분을 빼앗겼다고 위협했다. 그 다음으로 사무엘서 저자는 이러한 예배 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려주었다. 그는 삼상 2:17 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썼다.

그러나 이 설명에 바로 뒤이어서 저자는 삼상 2:18-21 에서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현저하게 다른 평가로 나아갔다. 그는 먼저 한나가 해마다 작은 걸옷을 지어다가 성소에 있는 사무엘에게 주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그녀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전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그런 다음, 삼상 2:21 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부분을 마감한다.

(삼상 2:21)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승인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그분의 심한 정죄와 정반대였다.

b) 하나님과 백성의 평가(삼상 2:22-26 Divine and Public Evaluations)

둘째로, 저자는 삼상 2:22-26 에서 엘리 가족과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과 백성의 평가를 대조했다. 한편으로, 삼상 2:22-25 에서 우리는 가나안의 풍요 의식에 영향을 받은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삼상 2:24 은 엘리가 “여호와와 백성”이라고 부른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아들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들이 계속 범죄하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질책을 무시했다. 삼상 2:25 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준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의 아들들을] 죽게 한 것은 주님의 뜻이었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하나님과 백성의 평가를 전한 후, 저자는 우리에게 이와 대조되는 사무엘의 봉사에 대한 짧은 설명을 준다. 저자는 사무엘에 대한 이전의 긍정적인 평가(삼상 2:21)를 확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지적하였다. 삼상 2:26 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삼상 2: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은 사무엘의 레위인[제사장] 봉사를 승인하였다.

c) 하나님의 반응(삼상 2:27-4:1a, God's Responses)

셋째로, 이러한 서로 다른 평가에 뒤이어, 저자는 삼상 2:27-4:1a 에서 엘리와 그의 가족의 불성실한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사무엘의 성실한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대조했다.

한편으로, 저자는 삼상 2:27-36 에서 엘리를 다루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선지자, 곧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어떻게 그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타락시켰는지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를 통해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삼상 2:31).”고 하시며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족을 거부하셨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서 그들을 제거하고 계셨다.

다른 한편으로, 저자는 삼상 3:1-4:1a 에서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조적인 반응을 전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 시기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일이 매우 드물었음을 특별히 언급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사무엘을 여러 번 깨우신 후에 삼상 3:11 에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일을 하려고 하신다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의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 영원히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아침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임을 인정했다. 저자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이러한 대조를 삼상 3:19-20 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마감한다.

(삼상 3:19-20) 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저자가 삼상 2:21, 26 에 나온 사무엘에 대한 그의 승인을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하라. 사무엘이 더욱 더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그분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d) 블레셋과의 갈등(삼상 4:1b-7:17 Conflicts with Philistines)

엘리의 가족과 사무엘의 대조는 삼상 4:1b-7:17 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에 대한 긴 이야기로 끝난다. 이 마지막 부분은 엘리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어졌는지에 주목하는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분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삼상 4:1b-22 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 가족의 죄악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왔음을 알게 된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옴으로써 경건을 가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를 승리를 위한 부적으로 여겼을 뿐이다. 게다가, 수년에 걸쳐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진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파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투에서 죽었고, 엘리 자신도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죽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엘리 가족의 죄악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왔다. 삼상 4:21 에서 과부가 된 엘리의 며느리는 갓 태어난 아들을 히브리어로 이가봇(יִגְבוֹת) [이-하보드]이라고 이름지었다. 이것은 "영광이 없다." 혹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이다. 삼상 4:22 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설명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는 이 끔찍한 저주를 나라에 가져왔다.

이 에피소드에 이어, 우리는 삼상 5:1-7:2 에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읽는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신전 안의 거짓 신 다곤의 우상 앞에 하나님의 궤를 놓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첫 번째 밤이 지난 이른 아침에 다곤의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대의 군인들이 종종 패배한 적들의 머리와 손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아스돗 사람들을 독종의 재앙으로 치셨다. 독종은 아마도 쥐가 퍼트리는 임파선종(bubonic plague, 흑사병)이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와 에그론으로 옮겼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셨다. 일곱 달이 지난 후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과 의논하였다. 그들은 풍요 종교를 상징하는 소들이 끄는 수레에 궤를 실어 돌려주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또한 여호와께 드리는 속건 제물로 블레셋 다섯 도시를 대신하여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을 보내라고 권하였다.

(아버네시[Andrew Abernethy] 박사)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전장에 나오는 것을 보며 정말로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 그 모든 재앙을 내리시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여호와의 궤이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정확히 옳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 보자.”라고 말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위대한 출애굽을 불러온 하나님의 궤라고 두려워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독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을 불러온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고 언약궤를 탈취할 수 있었다. ... 어쩌면 그 언약궤가

⁴ **Andrew Abernethy, Ph.D.** is Assistant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Wheaton College & Graduate School.

출애굽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이 크신 하나님과 정말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빼앗기도록 허용하셨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겪었던 재앙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행하셨던 방식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젓소들은 레위인의 성읍인 벰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궤를 가져왔다. 그러나 슬프게도 벰세메스에 있는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배 규례를 어겼다. 모세의 율법과는 달리, 그들은 블레셋의 금 독종과 금 쥐를 언약궤 앞에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게 언약궤를 덮어 가리기보다는 언약궤를 쳐다보았고 아마도 들여다보기까지 했던 것 같다. 그 결과 하나님은 벰세메스 사람 70 명을 죽이셨고 백성은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궤를 기랏여아림으로 보내 안전하게 지키게 하였다.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상 7:2 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삼상 7: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삼상 7:2 개역개정) 7:2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음 에피소드가 기록된 삼상 7:3-17 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한다. 예상대로 저자는 이번 승리의 이유로 사무엘의 성실한 봉사를 부각시켰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간청했다. 그는 그들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모세의 예배

규례를 어긴 것을 회개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 백성은 사무엘에게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셨다. 삼상 7:13 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사무엘의 신실한 예배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복을 가져왔다. 그는 해마다 벳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의 레위인 지도력의 전환의 마지막 부분은 엘리의 가족에서 사무엘에게로 레위인 권위가 전환된 것에 대한 어떤 의문도 다 해결했다. 엘리 가족이 하나님 예배를 멸시한 것에 대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패배로 몰아넣었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릴 때 신실하게 봉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왕정을 도입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다.

지금까지 사무엘의 왕정 도입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잠시 책의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다룰 것이다. 이 장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너무나 자주, 선의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독교 경험과 잘 어울리는 어떤 신학적 또는 도덕적 원리가 떠오를 때까지 사무엘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삼상 1-7 장)을 그저 되는 대로 읽는다. 사무엘서의 이 부분은 수많은 주제를 다룬다. 따라서 이 장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장들을 잘못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사무엘서 저자가 강조한 주제들에 우리 기독교인의 적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은 저자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조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우리 삶에 대한 이 장들의 관련성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공한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저자의 강조를 살펴보며 어떻게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보자.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사무엘서 저자는 여섯 가지 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를 통하여 모든 사람과 맺으신 언약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들,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으실 새 언약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왕정 도입의 사건들이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했을 때 일어난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서가 기록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원래의 독자들이 다윗과 그의 집에 비추어 자신이 쓴 이 장들을 적용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을 적용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신 후에 살고 있다. 이 새 언약은 모세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이전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재정립한다. 이 재정립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는 믿을 만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은택, 모든 인간 충성의 요구, 모든 저주와 복을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신약에 있는 성령님의 정확무오한 계시가 필요하다.

첫째로, 신약 성경은 사무엘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택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키시어 사사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은택을 베푸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더욱 큰 은택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수 세기 동안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게다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은 다양한 구체적인 은택의 형태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생활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써 우리는 사무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탐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 방법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에 나오는 인간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새 언약의 시대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자신의 완벽한 순종을 지향하며 나아간다. 브닌나,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 아들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는 그리스도의 참되고 신실한 예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한나,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신실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더 위대하고 더 완벽한 예배를 드러낸다. 사무엘서의 원래 독자들이 신실한 예배에 대한 모세의 표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의 예배 표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되고 신실한 예배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충성을 표현하기를 기대하신다. 예수님께서 요 4:23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 장들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또한 신약의 렌즈를 통해서도 보아야 한다. 이 주요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들은 원래의 독자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했다. 그것들은 죄가 전혀 없으셨을지라도 자신에 대한 구원적 믿음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위해 일시적인 저주를 내리신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서의 이 부분에 나오는 일시적인 복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신실한 예배를 드리도록 격려했다. 이러한 복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더 크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무엘서의 이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대하여 함의하는 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순종을 한 한나와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듯이, 신약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에 보상하기 위해 일시적인 복을 주신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일시적인 복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영원한 복을 맛보게 해준다.

방금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들의 관점에서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려는 저자의 목표도 유의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사무엘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삼상 1-7 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의 출생을 지시하셨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중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정말로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는 언젠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신약은 다윗의 완벽하게 의로운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신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소망을 성취하신다. 이전 강의에서 배운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세 단계를 거쳐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 그 세 단계는 그분의 초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개시,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속,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삼중 관점은 신약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사무엘서의 첫 주요 부분(삼상 1-7 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모든 적용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세 단계를 전부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나라의 개시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을 성취하기 시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지도력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전진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 기간 동안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극적으로 발전시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악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가졌던 고삐를 단호히 끊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으셨다. 마 28:18 에 기록된 대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확인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서의 첫 주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를 처음 차지하셨을 때 이루신 더 큰 일로 우리를 향하게 해야 한다.

둘째로,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그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스도는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을 점점 더 많이 성취하신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새롭게 해 주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로 점점 더 많이 확장하도록 지시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주셨다. 마 28:19-20 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을 적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교회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계속 확장해 나가시느지를 주시해야 한다.

(키너[Craig S. Keener] 박사)⁵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곧 천국을 설교하는 것을 발견한다. 천국(하늘 나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의 다른 표현 방식이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상에 대한 자신의 권위나 통치를 보여주셨다. ... 그러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정 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다. 그래서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이다. 그분이 인용하신 본문은 시 110:1 에 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시 110:1 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은 이 일이 그분의 모든 원수가 그분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셋째로,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하실 일을 고대하라고 촉구한다. 사무엘상 1-7 장은 원래 독자들에게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모든 적들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는 복을 가져올 날을 바라보라고 촉구했다. 그리스도께서

⁵ Dr. Craig S. Keener is the F.M. and Ada Thompson Chair of Biblical Studies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재림하시면, 그분은 사단과 그의 귀신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인간에 대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유업을 받을 때 자신의 승리의 영원한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마 28:20b 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을 적용할 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주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무엘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 곧 사무엘상 8 장에서 사무엘하 1 장까지 계속되는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룰 것이다.

III. 사울 왕정의 실패(SAUL'S FAILED KINGSHIP)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건을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는 사울을 어떻게 다루어야 했는가?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면, 사무엘은 왜 먼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가? 저자는 이런 문제들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인하셨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왜 사울과 그의 집을 영구히 거부하시고 그들을 다윗으로 대체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우리는 책의 첫 번째 부분을 다루며 평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루는 두 번째 부분을 탐구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논의할 것이다. 그럼 먼저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루는 부분(삼상 8 장-삼하 1 장)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사울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모두 하나로 묶는 주요 주제들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기 쉽다. 첫째로, 이 장들은 여러 면에서 왜 다윗의 집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전념한다. 저자는 사울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발전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울은 자신의 권위 아래 지파들을 통합했고, 이스라엘을 이끌며 하나님의 적들을 상대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 오래 참으셨지만, 사울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왕권을 박탈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르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할 것이었다.

둘째로, 저자는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학적 원리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속 은택을 베푸셨음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그는 두 가지 주요 요구 사항, 즉 예배에 관한 모세의 율법과 왕권에 관한 모세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모세 율법에 대한 사울의 위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한 저주를 초래했는지를 여러 번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모세 율법에 대한 다윗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는지를 밝혔다. 이 두 번째 주요 부분이 끝날 무렵,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과 그의 가족을 거부하시고 다윗과 그의 집을 영원한 왕조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루는 책의 두 번째 부분의 구조와 내용은 첫 번째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 저자는 먼저 삼상 8:1-15:35에서 사울의 초창기를 다룬다. 그런 다음, 저자는 삼상 16:1-삼하 1:27 에서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전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럼 먼저 사울의 초창기를 살펴보자.

1. 사울의 초창기(삼상 8:1-15:35 Saul's Earlier Years)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울의 초창기에 대한 그의 기록(삼상 8:1-12:25)은 청년 시절의 사울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을 다루고 있다. 그런 다음, 그의 이야기는 왕으로서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삼상 13:1-15:35)로 바로 넘어간다.

a) *응립된 사울(삼상 8:1-12:25 Establishment of Saul)*

사울이 왕으로 응립된 것은 여러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4 개의 대칭적인 단계로 나누인다. 첫 번째 단계(삼상 8:1-22)에서는 사무엘이 왕권에 대해 먼저 경고한 것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 나온다.

이 시작 에피소드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탐욕스럽고 정직하지 못하며 불공평했다. 사무엘과 달리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끌 수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삼상 8:9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삼상 8:9 개역개정)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사무엘은 삼상 8:11-17 에서 왕정에 대한 긴 경고를 선포했다. 이 단락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 왕들의 권위를 심각하게 제한한 신 17:14-20 에서 사무엘이 뽑아낸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은 왕들이 이러한 규례들을 위반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들은 그들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왕실의 땅을 쟁기질하고 수확하도록 강요하고, 전쟁의 무기와 기구를 만들도록 백성을 강요하고, 그들의 딸들을 요리사와 조향자(향료 만드는 자)로 징집하고, 그들의 땅을 약탈하고, 그들이 얻은 모든 것의 십일조를 요구하며, 왕 자신을 위해 그들의 노비와 젊은 사람과⁶ 나귀와 양을 빼앗음으로써 압제할 것이다. 결국 사무엘은 인간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자기 노예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삼상 8:18 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로 마감했다.

(삼상 8:18 개역개정)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통[Stephen Tong] 박사)⁷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⁶ [역자 주] 삼상 8:16 의 “הַטֹּבִים הַיְשָׁרִים” [브에트 바후레헴 하토빔]에 대하여 ESV 는 “the best of your young men”이라고 번역했고 NASB/HCSB 는 “your best young men”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우리말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소년”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καὶ τὰ βουκόλια ὑμῶν τὰ ἀγαθὰ”[Brenton: and your good herds]라고 번역했다. NIV 는 칠십인역을 따라 “the best of your cattle”이라고 번역했다. 공동번역과 쉬운성경과 현대어성경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로 번역했다. 새번역과 ESV 와 NIV 의 번역을 비교해보라.

새번역: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1)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칠십인역에는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짐승들과'

NIV: Your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the best of your cattle and donkeys he will take for his own use.

ESV: He will take your male servants and female servants and the best of your young men and your donkeys, and put them to his work.

Youngblood, 94, n. 16: In the context, “cattle” rather than “young men” (see NIV note) is clearly the better reading. The MT’s הַטֹּבִים הַיְשָׁרִים (... “the best of your young men”) perhaps arose under the influence of הַטֹּבִים הַיְשָׁרִים (... “an impressive young man”, 9:2). The word “best” modifies only “young men/cattle” in the MT; the NIV’s extension to “donkeys” is contextually apt.

⁷ **Rev. Dr. Stephen Tong** is a renowned Chinese evangelist and theologian, promoter of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왕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주변의 모든 민족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을 위한 왕을 갖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들의 요청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 그에게 속상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의 말을 듣되 ... 왕을 갖는다는 것은 과세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그들에게 말해라. 사람들이 뽑은 왕들은 온갖 짐을 지울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라. 이것은 왕이 자신을 제한할 경계선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 하나님을 존중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할 것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하신 이유이다.

여러분은 사무엘서 저자가 사무엘의 왕정 도입을 기록한 부분에서 모세의 예배 규례들을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저자가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도 예배에 대한 이러한 강조를 반복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준 경고에 집중함으로써, 저자는 모세 율법의 두 번째 측면, 즉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에 내세웠다. 모세 율법의 이러한 측면은 사울 왕정의 실패에 대한 그의 기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Reformed Evangelistic Movement, and the founder of the Stephen Tong Evangelistic Ministries International (STEMI), Reformed Evangelical Church and Seminary in Indonesia.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왕이 그들을 학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단락의 두 번째 단계는 먼저 하나님의 은택을 보여준다. 삼상 9:1-10:16 에서 저자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확정하신 것을 전한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인도하시어 사적인 의식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 우리는 삼상 10:1 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한 것을 본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여러 기적적인 징조로 확인해 주셨다.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택을 한층 더 많이 보여준다. 삼상 10:17-11:13 은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는 것을 전한다. 이스라엘의 일부 그룹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의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규합하여 그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사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의 네 번째 단계는 사무엘의 초기 경고를 반영한다. 삼상 11:14-12:25 에서 저자는 사무엘이 왕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경고한 것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것을 전하는 것으로 이 단락을 마감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택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고 경고하였다. 저자는 삼상 12:24-25 에 다음과 같은 사무엘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b) 버림받은 사울(삼상 13:1-15:35 Rejection of Saul)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준 불길한 경고는 뒤따르는 일에 대한 무대를 제공한다. 삼상 13:1-15:35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거부하신 것을 읽는다. 이 장들 전반에 걸쳐,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명령을 어겼는지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언약의 저주를 퍼부으시고, 사울과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보좌에서 내쫓으셨다.

저자의 사울 거부에 대한 기록은 많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삼상 13:1-14:52 에는 사울의 초기 거부가 나오고 삼상 15:1-35 에는 사울의 최종 거부가 나온다. 사울의 초기 거부 부분에서 우리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일련의 전쟁을 본다. 이들 전쟁은 삼상 13:1-4 에 나오는 바 이스라엘이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한 데서 비롯된다.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사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학대를 엿볼 수 있다. 사울 자신은 안전한 거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백성은 전장으로 나가게 했다. 더구나,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하였다.

삼상 13:5-15 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후 블레셋의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을 전한다. 사울은 백성에게 전투 준비를 하도록 요청하지만, 백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동굴과 바위 틈에 숨었다.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은 당황하여 사무엘의 지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내려가서 전투 전에 제사를 드릴 것이므로 그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었다[삼상 10:8].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군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대신 스스로 제사 드리는 길을 택하였다. 사무엘이 마침내 도착했다. 사울이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선포하였다. 삼상 13:14 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상 13:14 개역개정)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거부하신 것을 이야기한 후, 이어서 삼상 13:16-14:46 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싸운 것을 언급한다. 우선, 우리는 사울이 왕권을 남용한 또 다른 방법을 배운다. 무모하게도 그는 자신의 군대에 철검과 창을 제공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그것들을 제공했다.

우리 저자는 또한 사울이 처음에는 전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공격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후에야 비로소 사울은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때도 사울은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규례를 어겼다. 사울은 그들이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블레셋의 공격이 임박해 보이자 사울은 제사장을 저지하고 적절한 준비 없이 전투에 돌입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군대를 더욱 확대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일에 너무 열중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잠시라도 먹으려고 멈춘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요나단은 꿀을 조금 먹었다. 사울의 병사들이 그를 꾸짖었을 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지적했다. 삼상 14:29, 30 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구나. ...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사울이 병사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명령은 전투가 끝난 후 예배 규례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위반을 일으켰다. 사울의 부하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전리품에 달려가서 짐승을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마구 먹었다. 이것은 레 17:10 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였다. 병사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임을 깨달은 후에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짐승을 도살할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었다. 저자는 삼상 14:35 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고 논평함으로써 사울의 노력을 더욱 최소화했다.

그 시점에서 사울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지만, 삼상 14:37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병사들에게 요구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를 요나단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사울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요나단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명령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억압적인 통치를 드러냈다. 사울이 요나단을 처형하지 않은 것은 병사들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간청하여 구해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최초 거부에 대한 기록을 마감하면서 삼상 14:47-52 에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의 전투와 그의 군대를 이끌었던 용사들에 대한 요약 묘사를 한다. 그러나 그는 삼상 14:52 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불길한 말을 덧붙였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승리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주 거부하시므로 블레셋 사람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지 않으셨다. 더구나 우리는 삼상 14:52 에서 "사울이 힘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사무엘이 경고한 그대로, 사울은 그의 끝없는 전쟁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징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억압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최초로 거부하신 것을 전한 후, 저자는 삼상 15:1-35 에서 사울이 아말렉 사람과 싸운 것을 전하며 사울이 최종적으로 거부당한 것을 보여준다. 출 17:14-16 과 민 24:20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후대에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 사울을 전투에 보내기 전에, 사무엘은 모세의 율법으로 성문화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분명히 상기시켰다.

그러나 아말렉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삼상 15:9 에 따르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최고의 전리품을 남기며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 대신 그들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다른 강좌에서 우리가 설명하듯이, 여기 "진멸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 [하람](חָרַם)을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진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제물로 온전히 바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생애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예배에서 아주 멀리 돌아섰다. 그는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지 않고 최상의 것을 전리품으로 남겨두었다. 게다가, 삼상 15:12 에 의하면,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사무엘이 대면하여 책망할 때, 사울은 최상의 전리품을 남긴 것을 그의 병사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셨던 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삼상 15:28 에서 다음과 같은 운명적인 말을 전달하였다.

(삼상 15:28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삼상 15:29 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상 15:29 개역개정)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미카일[Emad A. Mikhail] 박사)⁸ 사울은 왕으로서 실패했고, 그의 나라는 필요한 영적 특성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는 기술과 능력에 관한 몇 가지 외적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마음을 바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아말렉 사람과 싸우라고 사울을 보내시며 아말렉을 진멸하여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말렉을 진멸하여 바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이해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말렉 왕과 최상의 양들을 살려주었다.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그 일을 물었을 때, 사울은 말이 안 되는 변명으로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사울은 거역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거역에 대해 매우 분명했다. 그는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했다. 사울은 반역적이고 거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다.

사울이 회개하는 척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는 최종적이었다. 사무엘은 아말렉 왕을 칼로 죽인 후 사울을 떠나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해 동안 은택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너무 불충해서 더 이상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⁸ Rev. Dr. Emad A. Mikhail is President of Great Commission College in Egypt.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의 초창기,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거부하셨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삼상 16:1-삼하 1:27 에서 왕의 지도력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전환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2. 지도력의 전환(삼상 16:1-삼하 1:27 Transition in Leadership)

사무엘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이 엘리 가족에서 사무엘에게로 제사장 지도력이 전환되는 것을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들은 다윗이 사울 대신에 왕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여러 가지 대조를 제시한다.

이 장들의 강조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젊고 성공한 전사들이 그들의 왕들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꽤 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에 대한 반역을 주도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장들에서 사실대로 바르게 기록을 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하지 않았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사울의 겸손한 종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사울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저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울의 거역에 대하여 저주하시고 다윗의 겸손한 섬김에 대하여 복을 주심으로써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반전시키셨다.

이 지도력의 전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반전시키시는 저주와 복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인다. 첫째 단계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의 배경이고(삼상 16:1-23), 둘째 단계는 사울의 적개심의 고조이고(삼상 17:1-23:28), 셋째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의 완화이고(삼상 23:29-27:12), 넷째 단계는 사울의 적개심의 여파이다(삼상 28:1-삼하 1:27).

a) 적개심의 배경(삼상 16:1-23 Background of Hostility)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의 배경을 제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장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영적인 힘을 보여준다. 두 에피소드 중 첫 번째 것은 삼상 16:1-13 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을 다룬다. 이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어 라마의 고향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사적인 의식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다윗에게 복을 베푸셨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또 다른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했다. 삼상 16:13 에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아도나이] (רוּחַ יְהוָה), 곧 “여호와와 영”이 “그날 이후로 크게 다윗에게 임했다.”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이 “그날 이후로” 행한 많은 선한 일의 근원임을 분명히 했다. 저자는 여호와께서 삼상 16:18; 18:12, 14, 28 등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명시적으로 강화했다.

사울의 적개심의 배경을 다루는 두 번째 에피소드(삼상 16:14-23)는 사울과 악령에 대해 전함으로써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이 구절들은 다윗이 수도 기브아에 와서 정기적으로 사울을 섬기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삼상 16:14 은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가지 저주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히브리어 [루아흐 라아], cf. ESV 해로운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장의 뒷부분에서 저자는 이 저주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성령의 떠나심은 사울을 두려워하게 했고(삼상 18:12), 악령은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다(삼상 18:10; 19:9). 사무엘서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을 불러와서 사울을 돕도록

하였다.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을 유능한 음악가, 용감한 전사, 신중한 연설자로 묘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울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말했다. 저자는 이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사울과 다윗 사이의 대조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거기서 그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갔다고 전했다.

b) 사울의 적개심의 고조(삼상 17:1-23:28 Escalation of Saul's Hostility)

사울에서 다윗으로 지도력이 전환되는 두 번째 단계는 삼상 17:1-23:28 에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이 고조되는 동안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삼상 17:1-18:9 에서 사울의 초기 적개심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알려진, 사무엘서 전체에서 가장 긴 단일 이야기를 만난다. 저자는 사울과 그의 군대가 기브아를 떠나 소고와 아세가 근처에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과 전열을 벌였다고 전한다. 그곳에서 위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자기와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도전하고 있었다. 심중팔구 이 에피소드는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사울을 섬기기 전에 일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상 17:58 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았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두드러진 대조가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삼상 17:11 을 보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의 위협을 듣고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젊고 소박한 목동 다윗에게 용기와 믿음으로 복을 주셨다. 삼상 17:45-47 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복을 가져왔다. 우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했다. 더욱이, 사울과 다윗이 전투를 마치고 기브아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은 다윗의 큰 성공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이 모든 지지는 사울을 격분시켰다. 삼상 18:8-9 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여인들의 칭송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폴크머[Jeffrey A. Volkmer] 교수)⁹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다윗의 승리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울의 패배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뽑은 이유를 보면, 그들은 그의 체격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는 적어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블레셋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할 때, 그와 싸우러 나서야 하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울이다. 그런데도 사울은 싸우러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 다윗이 등장한다. 사울은 심지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 시도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고 너무 크다는 것을 안다. 이를 보면 십중팔구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주는 정말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좋아, 네가 내 갑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면, 사람들은 아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다윗은 말하자면 그런 정체성을 던져버린다. 사무엘서 전반에 걸쳐 의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항상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다윗은 사울의

⁹ Prof. Jeffrey A. Volkmer is Assistant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갑옷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그의 정체성도 거절하고, 목자의 도구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목자의 도구가 키가 크고 힘세고 갑옷 입은 왕보다 더 우월하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좋은 지도자가 될 모든 신분 증명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왕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왕을 더 선호하신다는 것이다.

사울의 초기 적개심(삼상 18:6-9)에서 간접적인 적개심(삼상 18:10-19:17)으로 옮겨 감에 따라 드라마의 강도는 높아진다. 이 에피소드들에 나오는 모든 행동은 주로 기브아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도록 하려고 했다. 이 부분은 4 개의 간단한 에피소드로 나뉜다. 첫 번째 에피소드(삼상 18:10-16)에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기습 공격을 하도록 보냄으로써 다윗의 죽음을 구하였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이 이런 공격을 하는 동안 죽기를 바랐다. 우리는 또한 이 시기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삼상 18:14 은 우리에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다윗의 성공으로 사울은 질투와 두려움을 갖는 저주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며 백성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칭송을 받게 하셨다

두 번째 에피소드(삼상 18:17-30)에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죽음을 구했다. 기브아에 있는 동안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 메랍을 그의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며 더욱 더 용기를 내어 블레셋과 싸우라고 말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를 기대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곧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사울은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냈다. 그런 다음 사울은 다시 시도했다. 그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 개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의 작은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윗은 크게 성공하여 블레셋 사람의 포피 이백 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울을 다시 한 번 두려움으로 저주하셨고, 다윗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더욱 심해졌다.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저자는 삼상 18:30 에 “블레셋 방백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에피소드(삼상 19:1-8)에서 사울은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궁중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요나단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결백을 선언하고 다윗이 한 모든 일이 사울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아버지를 꾸짖기까지 했다.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거짓으로 맹세하였다. 저자는 삼상 19:8 에서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논평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간접적인 적개심을 다루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에피소드(삼상 19:9-17)에서 사울은 전령이나 암살자를 통해 다윗의 목숨을 노렸다. 삼상 19:9 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다시 사울에게 임했음을 말해준다. 다시 사울은 그의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령을 그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의 아내 미갈은 밤에 다윗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른 사람들을 시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에 초점을 맞춘 후, 저자는 삼상 19:18-23:28 에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직접적인 적개심의 고조를

다룬다. 이 장들은 사울이 여러 곳에서 다윗을 추격하는 동안,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과 사울에게 내린 저주를 추적한다.

첫째로, 삼상 19:18-24 에 기록된 대로 사울은 라마에 있는 다윗과 사무엘을 대적했다. 다윗은 기브아에서 사울의 암살자들을 피한 뒤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고향으로 도망쳤다. 거기서 사무엘은 그의 지도 아래 있는 선지자 무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고, 두 사람 다 나웃 근처로 피신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전령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며 극적으로 복을 주셨다. 사울이 전령을 세 번이나 보냈지만, 그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압도하시므로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좌절한 나머지 사울 자신이 직접 라마 나웃으로 갔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울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수치를 안겨주셨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둘째로, 삼상 20:1-42 에서 우리는 사울이 기브아에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 보인 직접적인 적개심을 본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떠나 기브아로 돌아와 겸허하게 요나단에게 자신의 결백을 항변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다윗에게 복을 주시며 요나단의 지지를 얻게 하셨다. 그들은 함께 사울이 아직도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방법을 고안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의 충정을 두고 잔인하게 질책했을 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여전히 다윗이 죽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요나단은 영원한 지지를 맹세하며 다윗을 떠나보낸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삼상 20:42)."고 말했다.

셋째로, 삼상 21:1-23:13 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들은 사울이 다윗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공격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분은 다윗이

기브아에서 성막과 제사장들이 있는 농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아둘람 동굴, 모압의 미스베까지 이동하였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함께 유다의 그일라에 잠시 머물렀다.

다윗은 농에 있는 성막에 이르러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 부하와 자기 자신을 위한 떡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히멜렉은 진설병 곧 성막에서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 외에는 떡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히멜렉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복을 설명해 주었다. 다윗은 삼상 21:5 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히멜렉은 그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 게다가, 다윗이 무기를 요구하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인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 전반에 걸쳐 사무엘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다윗이 한 일에 대해 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주 미묘한 단서들을 준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표면상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레 24:5-9 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떡을 먹으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가 남자들의 거룩함과 다윗의 골리앗의 칼 수령을 거론한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사울의 불충성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충성을 부각시키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인하셨음을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음으로써 안식일을 어겼다는 잘못된 주장에 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며 눅 6:3 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장들 전반에 걸쳐 나오는 이런 미묘한 단서들은 원래의 독자들이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날 늦에 사울의 목자장인 도엑이란 에돔 사람이 있었다. 다윗은 도엑이 자기 행방을 사울에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쳤다. 그는 잠시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갔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블레셋 왕을 속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둘람 동굴로 갔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약 400 명의 전사가 다윗에게 오도록 복을 주셨다. 그러나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징집한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 전사들을 징집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그에게 왔다. 다윗은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압 미스베의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복을 보여주었다. 그는 선지자 갓이 유다로 가라고 말할 때까지 그 곳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겸허히 따랐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울에 대한 악령의 저주가 뚜렷이 드러났다. 기브아에서 사울은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에게 다윗이 농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이미 떠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도엑에게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삼상 22:18 에서 우리는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팔십오 명을 죽였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그런 다음 사울은 농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그리고 짐승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제사장 아비아달만이 도망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합류했다.

다윗과 아비아달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유다 안에서 함께 이동하였다.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쭙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셨다. 그 동안에 하나님은 또한 사울이 그일라로 온다는 것을 아비아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불러 다시 한 번 인도를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떠나야 한다고 계시하셨다. 다윗이 떠난 것을 알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일라로 가는 것을 그치고 돌아섰다.

넷째로, 삼상 23:14-28 은 사울의 직접적인 적개심을 다루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으로 사울이 광야에서 다윗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서로 연결된 공격을 한 것을 다루고 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십 광야로 이동했고, 나중에 더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로 이동했는데, 사울이 다시 그를 추격해왔다.

이 부분의 시작(삼상 23:14)은 사울에 대한 악령의 저주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듣는다. 삼상 23:17 에 의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안심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에 십 광야의 사람들이 사울을 다윗에게로 인도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더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로 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과 싸워야했다.

c) 적개심의 완화(삼상 23:29-27:12 De-escalation of Hostility)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이 시작되고 고조되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23:29-27:12 에 나오는 사울의 적개심의 완화를 다룰 것이다. 이

자료들은 다윗의 충절로 인해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평화롭게 살게 했는지 강조한다.

첫 번째 부분(삼상 23:29-24:22)은 엔게디에서 있었던 잘 알려진 다윗의 에피소드이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떠난 후, 다윗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엔게디로 알려진 곳으로 갔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자 다시 한 번 다윗을 추격했다. 그 도중에 사울은 잠시 멈추며 뒤를 보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다. 다윗은 사울을 쉽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대신 사울의 겹옷 자락만 잘라냈다. 그리고 다윗의 양심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다윗이 여호와의 기쁨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한 이 작은 행위조차도 죄의식을 느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다윗은 멀리서 사울을 불렀다. 그는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며, 앞으로도 사울을 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사울은 즉시로 아주 분명하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삼상 24:17).”라고 말했다. 그리고 삼상 24:20 에서 사울은 스스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고백했다.

두 번째 부분(삼상 25:1-44)에서 저자는 바란 광야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에게 일어난 일을 묘사했다. 사울은 이 에피소드에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자는 사무엘이 죽었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애도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저자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다윗과 사울이 임시 휴전을 조건으로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했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울의 적개심이 어떻게 가라앉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운에 맡기지 않고, 즉시 사울로부터 유다 남부의 광야, 곧 바란 광야로 도망쳤다. 거기서 다윗의 행위는 다시 한 번 그의 결백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과 그녀의 잔인하고 사악한 남편인 “바보”라는 뜻을 지닌 나발에 대해 듣는다. 다윗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잘 대해주고 보호해준 후에,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 부하들을 위한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나발이 어리석게도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령들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부하들을 준비시켜 나발의 집을 공격하게 하였다. 아비가일은 남편 대신 개입하여 다윗에게 선물을 주며 남편을 위해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또한 다윗의 선함을 겸허히 인정했다. 이에 다윗은 자기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열흘쯤 지나서 여호와께서 친히 나발을 치시므로 그는 죽었다. 다윗은 나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삼상 25:39 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리고 얼마 후 아비가일이 그의 아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욱 더 복을 주셨다.

(아코지예람[Humphrey Akogyeram] 박사)¹⁰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의 집을 위해 많은 좋은 일을 했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음식을 줌으로써 그의 관대함을 보답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나발에게 사자를 보냈을 때, 나발은 다윗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가서 복수하며 ... 나발과 그의 집안 일부 식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다. 아비가일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재빨리 음식을 장만하여 다윗을 만나려고 집을 나섰다. 임무 수행, 곧 복수를 하려고 오는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다윗에게

¹⁰ Rev. Dr. Humphrey Akogyeram is a professor at Good News Theological Seminary in Accra, Ghana.

복수를 하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었다. 그 때에 다윗은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그 결과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선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돌아왔다. 며칠 후 하나님은 나발을 치셨고 나발은 죽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에게 전령을 보내 결혼 의사를 전했고, 아비가일은 수락하고 다윗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복수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복수는 주님께 속한 것이다.

세 번째 부분(삼상 26:1-25)에서 저자는 두 번째로 십 광야에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사울은 다시 한 번 다윗을 추격해 왔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이 머리 곁에 창을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을 해하는 것을 거절하고, 사울의 창과 물 병을 가지고 떠났다. 다음 날 하나님은 다윗이 자제한 것에 대하여 복을 주셨다. 다윗과 사울이 멀리서 말을 주고받을 때, 사울은 다윗의 결백을 인정했고 다윗에게 복을 선언하며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삼상 26:25).”고 말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의 완화의 네 번째요 마지막 부분(삼상 27:1-12)은 블레셋에 있는 다윗을 다룬다. 다윗은 다시 한 번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이번에도 블레셋 땅으로 갔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 성으로 도망친 것을 알고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결정에 대해 복을 주신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은 다른 면에서도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의 거주지로 시글락을 주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인 공습을 이끌었다.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오히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공격하도록 도왔을 뿐이다. 그래도 여전히 아기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윗을 미워하므로 다윗이 평생 자기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다윗을 신뢰하였다.

d) 적개심의 여파(삼상 28:1-삼하 1:27 Aftermath of Hostility)

다윗에 대한 사울의 공격의 배경과 고조와 완화를 다룬 후, 사무엘서 저자는 삼상 28:1-삼하 1:27 에서 사울의 적개심의 여파를 보여준다. 이 장들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저자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사울에게 저주를 내리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울의 적개심의 여파를 보여주는 첫 번째 부분(삼상 28:1-25)은 블레셋과의 전투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무엘서 저자는 그의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다윗과 사울이 관련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번갈아 엮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암시했다.

첫째로, 우리는 삼상 28:1-2 에서 다윗이 전투를 준비하는 짧은 에피소드를 만난다. 이 사건들은 블레셋의 도시 가드에서 일어났다.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그와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윗은 그 계획에 동의한다는 인상을 주며 아기스를 속였다. 아기스는 기뻐하며 다윗에게 평생 그를 왕의 호위병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참전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중 에피소드까지 기다렸다.

둘째로, 저자는 삼상 28:3-25 에서 사울이 전투를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사무엘 시대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다. 레 20:27은 접신 곧 죽은

자를 불러 묻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서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울은 엔들의 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령하였다. 나타난 영이 실제로 사무엘이든, 속이는 귀신이든, 그 영은 사울에게 결코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려주었다. 삼상 28:17 에서 그 영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는 사무엘의 이전 말을 되풀이했다. 삼상 28:19 에서 그 영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징죄하시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울의 적개심의 여파를 보여주는 두 번째 부분(삼상 29:1-31:13)은 블레셋과 교전하는 다윗과 사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상 29:1-30:31 에 나오는 내러티브는 다윗의 승리를 보여준다. 여러분은 삼상 28:1 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다윗이 자기와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장들에서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그들과 합류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갔고, 사울과 결코 싸우지 않았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성읍을 불태우고 자기 아내들을 사로잡아 간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이 했어야 할 일을 했다. 다윗은 하나님 백성의 영예로운 지도자 역할을 하며 전리품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자는 삼상 31:1-13 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것을 전한다. 길보아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경고했던 저주를 쏟아부으셨다. 이 전투에서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다. 활 쏘는 자의 화살에 치명상을 입은 사울은 삼상 31:4 에 묘사된 대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얹드러진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뱀산 성벽에 못 박아 붙여서 그들을 망신시켰다. 그러나 야베스 길르앗의 용감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뱀산 성벽에서 시체들을 내려 가지고 돌아와 불사르고 그 뼈를 장사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의 여파를 전하는 세 번째 부분(삼하 1:1-27)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후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여준다. 사울의 적개심의 여파를 마감하는 이 부분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의롭게 대처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다윗은 삼하 1:1-16 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그를 처형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삼하 1:17-27 에서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애도했다. 다윗은 슬피 울며 삼하 1:19 에서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울부짖었다. 다윗은 삼하 1:19, 25, 27 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는 잘 알려진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사울과 요나단을 예우하였다. 사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겸손한 신하로서 충절을 유지하였다.

지금까지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루는 사무엘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삼상 8 장-삼하 1 장)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기독교인의 적용을 해야 하는가?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사무엘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삼상 8 장-삼하 1 장)의 많은 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른 고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투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틀림없이 우리 대부분은 여기저기서 몇 가지 관련된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가 사울 왕정의 실패에 대하여 처음 썼을 때 염두에 둔 주요 목적들과 우리의 기독교인 적용을 일치시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사울 왕정의 실패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탐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언약들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비추어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무엘서의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의 중요한 방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루는 부분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상호 작용이 주로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지배되었을 때 일어났다. 모세의 율법은 사무엘서 저자가 하나님의 은택, (특히 예배와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충성에 대한 표준, 그리고 저주와 복의 결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보았듯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뒤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원래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중심성에 대해 계시하신 모든 것에 비추어 이 장들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기대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사울 왕정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시대에 비추어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신 후에 살고 있다. 이 새 언약은 다윗의 위대한 아들로써 예수님의 중심성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이전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재정립한다. 이런 이유로, 이 장들에 대한 적용을 인도받기 위해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

(웰룸[Stephen J. Wellum] 박사)¹¹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절정을 이루는 성경의 언약들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의 작정을 우리에게 밝히기로 선택하셨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성경의 모든 측면이 옛 언약 아래서나 구약 시대에 왔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가 "이것은 적용된다.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렌즈와 격자이다. ... 구약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구약은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우리는 읽고 있는 성경 부분을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그것의 자리에 놓고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비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오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사무엘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에서처럼 이 두 번째 주요 부분이 하나님의 은택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은택을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주셨을 때 그분의 은택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으로 대체하셨을 때 그분의 훨씬 더 많은 은택을 보았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¹¹ **Dr. Stephen J. Wellum** is Professor of Christian Theology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훨씬 더 큰 은택을 보이셨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우리는 이 특별한 은택—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은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은택—을 시인하며 감사할 기회가 있다.

둘째로, 사울 시대의 인간의 충성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장들은 사울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것을 폭로한다.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무시하고 타락시켰다. 그리고 그는 왕권에 대한 모세의 규례들을 계속해서 어겼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흠 없는 헌신과 다윗의 완벽한 아들로써 예수님의 흠잡을 데 없는 통치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완벽하게 의로운 통치를 본받아야 할 책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이 두 번째 주요 부분은 또한 다윗의 신실한 예배에도 주목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예배가 다윗의 예배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다윗의 예배를 능가해야 한다. 게다가, 저자가 다윗의 명예로운 왕권 행사를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벽한 왕권을 기뻐하며 그분의 모범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배운다.

(파임[Mr. Sherif Atef Fahim])¹²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신이 위대한 왕이라고 느끼고 있던 거만한 사울에게서 왕위를 취하시어 다윗에게 주셨는지를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양을 치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 사무엘상이 다윗의 왕권, 위대함,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무엘하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상적인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의 죄와 약점을 본다. 이것은

¹² Mr. Sherif Atef Fahim teaches at Alexandria School of Theology in Egypt.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수치심을 완전히 제거할 참된 구주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참된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셋째로, 이 장들은 저주와 복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인다. 사울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저주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한 저주를 짊어지셨다. 사울이 받은 저주들은 또한 지금도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저주로 그의 교회를 징계하신다고 경고한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실한 봉사로 인해 받은 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의 일시적인 복과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구하도록 권고받는다.

기독교인으로서 사울 왕정의 실패 부분을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따라 적용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것에 비추어 이 장들을 적용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 왕정의 실패에 대해 글을 써서, 원래 독자들이 사울의 집에 대한 모든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도 역시 다윗의 유일한 의로운 자손인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예수님은 단독으로 사무엘서 저자가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루는 내러티브에서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세 단계를 거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다.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개시하셨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을 볼 것이다.

첫째로, 사무엘서의 원래 독자들은 사울의 실패로부터 소망은 다윗의 집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심할 여지없이—그분의 기적,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유일한 왕이심을 증명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개시를 되돌아본다.

둘째로, 사무엘서의 원래 독자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탱해 주셨다. 우리는 2 천년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다윗의 의로운 아들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도록 임명하셨음을 거듭거듭 입증하셨다. 다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복음의 전파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으신다.

셋째로, 사무엘서 저자는 원래 독자들에게 미래와 다윗 보좌의 완전한 회복을 주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정의 실패에 대한 저자의 기록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우리 시대의 완성을 고대하라고 촉구한다. 신약은 그 때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선택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분명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확신시킨다. 바울이 빌 2:10-11 에서 말한 대로, 그 날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캠벨[Constantine Campbell] 박사)¹³ 그러므로 신약에서 우리는

¹³ Dr. Constantine R. Campbell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과 민족과 언어에서 온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고, 한 특정 장소나 한 지리적 장소에 위치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 본향인 하늘에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신약은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숨겨져 있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모든 무릎은 꿇을 것이다... 모든 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인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알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러한 사건들이 다윗의 통치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시하셨다. 사무엘서의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높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사건들을 지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IV. 결론(CONCLUSION)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도록 이끈 여러 사건을 추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가 책의 첫 번째 주요 부분에서 사무엘의 왕정 도입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리고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에서 사울 왕정의 실패를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탐구했다.

사무엘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잃도록 유혹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통치를 위한 길을 마련하셨는지를 겸허히 생각할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도록 격려한다.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속에서 한없는 복의 영원한 유산을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